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산림레포츠시설 준공 박차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방문해 지역 발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지원 요청

남원시 관계자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를 방문, 정부부처 예산안에 일부 및 미반영된 국가예산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국회를 방문한 20일은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장과 만나 남원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구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의원, 이성운 의원, 이원택 의원 등 전북자치도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해 소통하며, 2026년도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에 다 같이 한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442억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협력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190억원) △국제 드론 레이싱 경기(DFL) 운영 시스템 구축



최경식 남원시장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3억원) △남원 도자전시관(170억원) △남원 현대유희목공예관(152억원) △남원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조성(490억원) 등이며, 남원시는 부처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된 상황에서 이제는 기재부와 국회단체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민 임실군수, 성수산 자연휴양림에 조성 중인 사업장 점검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의 대표 명산인 성수산 왕의 숲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이 곧 들어선다.

군은 성수산 자연휴양림에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시설을 이달 말 완공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준공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지난 19일 심 민 군수는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사업 현장 주요 시설물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성과 운영 시 필요 사항, 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준공되는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60억원(도비 30억원, 군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됐다.

주요시설은 산림레포츠 체험지원센터와 트리탑점점대, 외줄이동시설(쥘리안),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군은 기존 개인 소유의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매입하여 노후 시설물들을 철거 후 산림휴양관 분관 신축 및 별관 리모델링을 추진, 지난해부터 정식으로 개장에 운영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연과 건강을 동시



에 누릴 수 있는 맨발 걷기 길도 개장했다. 맨발 걷기 길은 총연장 1.1km 거리로 2구간의 황토길로 조성되어 맨발로 걷는 즐거움과 건강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로써 성수산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과 복합체험단지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준공 전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한치의 안전성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충분한 시운전과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추후 산림레포츠시설 개장 시 이용객들에게 이색 체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남원중학생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0일, 남원중 1학년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화재 대피 요령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위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 중심으로 구성,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흉부압박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직접 실습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체감했고,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과 대피 유도 요령도 익혔다.

김승현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서, 장마철 인명 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지난 20일 여름철 집중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풍수해 대비를 위해 경천주차장 등 위험지역 3개소를 현장점검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찰서장 주재로 집중 호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경찰서 각 과·관·실장, 재난 담당 등 10명이 참석해 다가오는 장마철 침수 대비 관련 기능 간 의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현장 회의가 끝난 후 상습 침수우려지역인 경천주차장, 화탄지구 등 침수 취약 구간 현장에 직접 진출하여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련 기능 간 협조 사항에 대해 토의하며 기능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책 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정호 순창서장은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훈련 등 관련 기능 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호우 대비 상황 판단회의 가져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0일,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건조역 사이로 높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 이에 남원소방서는 호우 취약지역 분석 및 대비태세 점검 등 각 부서 총력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순간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주 내용은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



점검 △하천 저지대,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대 등 위험지역 순찰 △재난안전 전동신방 상황 공유 등을 논의했다. 김승현 서장은 "집중호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생활개선 연합회 임원 대상 활력화 지원사업 진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난 19일, 2025년도 한국생활개선 남원시연합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활력화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고, 과화영농 실천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여 농업정책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임원진들은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여성들이 지



역사회와 농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

심민 군수 주재 152개 사업 진행 상황·추진계획 논의

임실군이 최근 심 민 군수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5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2,000만원 이상 152개의 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개별 사업별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 방안을 공유했다.

심 군수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의 기본·실시설계와 공경별 일정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으로 직접 지급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분할 교부 예의 등 제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신속집행제도 활용 지침에 따라 선급금 집행 활성화, 긴급입찰, 계약·적격심사 단축, 관급자제 선고지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54.5%)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 가속화가 필요한 만큼, 국장 주재하에 부진 사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 부서가 합심하여 마지막까지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소방·경찰, 긴급신고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순창소방서와 순창경찰서는 지난 20일 순창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긴급신고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 대응 시 소방과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공동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최

근 언론을 통해 지역적 소방·경찰 간 정보 미공유 사례를 계기로 삼아, 지역 내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순창소방서 현장대응단장과 지휘조사팀장 등 4명, 순창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과 112상황팀장 등 4명 등 총 8명이 참석해,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활성화 및 실시간 현장상황 공유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단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